



보도자료

		일자리정책과장	한 정 훈	2133-5445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장	오 지 현	2133-5350
		담 당 자	박 재 현	2133-5438
사진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수 : 7매	관련 누리집	http://seouljobnow.co.kr/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 상단 <공지사항>	

서울시,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50개 선정...아이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

- 시, 17(금)부터 서울형 강소기업 접수...현재 305개 인증유지, 올해는 50개 기업 선정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지원 및 유연 근무 활성화 등 일·생활 균형 평가 비중 강화

① 청년 정규직 채용하면, 건강검진, 육아시설 개선 가능한 최대 4천 5백만원 근무환경개선금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업무공백 해소 위해 최대 23개월간 기업당 최대 6명
 ③ 육아 친화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 교육 ④ 청년재직자 번아웃 예방 맞춤형 프로그램

- 시, 청년재직자의 워라밸과 자기계발 챙기고,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 만들어갈 것

- 서울시가 일과 생활이 균형을 통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 강소기업’을 총 50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초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해 선정 기준에 ‘육아지원, 가족친화 유연근무’ 부분의 배점을 확대했다.
- 「서울형 강소기업」은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중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고용 안정성, 복지혜택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한다.

- 오세훈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기업인과 만나는 현장을 찾아 역대급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려면 양육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 만들기에 기업들이 함께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한 바 있다.
- 현재 305개 기업이 인증을 통해 서울시 지원을 받고 있으며, 올해 선정기업에는 ①청년 정규직 채용시 근무환경 개선금(최대 4,500만원), ②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기업당 최대 6명, 최대 23개월간 지원), ③일·생활 균형 교육·컨설팅 제공, ④재직청년의 성공적 직장 적응 지원(번아웃 예방, 조직문화 개선)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형 강소기업 신규 선정 평가 지표 개선〉

당초		개선안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20점)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20점)	
- 육아휴직자 복귀율	5	- 육아휴직자 복귀율	5
- 육아지원제도(남·여)운영실적	4	- 육아지원제도(남·여)운영실적	5(+1)
- 경력보유여성 채용실적	3	- 경력보유여성 채용실적	2(△1)
-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3	-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5(+2)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3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2(△1)
- 일·생활균형제도 관련 명시 규정 존재 여부(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2	- 일·생활균형제도 관련 명시 규정 존재 여부(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1(△1)

- 육아휴직 대상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녀 출산·양육 지원제도 도입 여부,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등으로 대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보완하였다.
- 아울러, ‘기업의 성장 우수성’ 평가항목을 가산점 항목으로 변경하는 대신 배점을 상향하여 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 역시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심사에서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①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사내복지 개선 등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45백만원 지원>

-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500만 원씩 기업당 3명까지 총 4,500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 근무환경개선금은 육아시설 설치·개선, 휴게·편의시설 증진, 결혼·출산 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사내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비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②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에 최대 23개월 인건비 지원으로 업무공백 해소>

-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 인원을 선정 기업당 6명까지, 최대 23개월까지 지원하여 양육자의 업무공백 부담해소 및 구직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한다.
 -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청년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 인원 6명 중 2명까지는 전액 지원, 4명은 50%를 지원한다.

- 최대 23개월의 기간은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18개월+산전·후 휴가 3개월+업무인수인계 2개월’을 산정한 기간이다.
 - 육아휴직 전·후 합동근무를 통한 집중적 직무교육 및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며, 육아휴직자는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한다.

<③ 육아친화 및 일·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

-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을 이루는 기업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하여 임직원 대상 일·생활균형 기본 교육과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심화 컨설팅도 진행한다.
- 기업의 일·생활균형 수준을 진단하는 설문은 사전에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생활 균형 컨설턴트가 신규 강소기업을 방문, 교육과 수준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④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로 신입직원 번아웃 예방을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 도입>

-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신입 청년(18~34세)이 잦은 이직으로 인한 탈진(burnout) 경험으로 구직을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도록 신입 직원 마음챙김, 스트레스 관리, 비즈니스 매너 등 직장적응 지원(온보딩프로그램)으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여 일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서울형 강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신입직원(MZ)세대와의 소통 방식,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때의 대처방법 등 청년친화적 기업문화 개선 교육을 통해 ‘청년이 오래 일하고 싶은 기업 만들기’에도 집중한다.

<5. 17. ~ 6. 5. 모집,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이면 신청 가능>

-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5월 17일(금)부터 6월 5일(수)까지 모집하며, 최종 5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및 복귀율, 출산·양육지원제도 도입 등) ▲고용안정성(청년 고용유지율,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등) ▲일자리 창출실적(전년도 평균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비율) 등의 평가지표를 면밀히 심사하여 7월 말 최종 선정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5일(수)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누리집(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8)로 문의 가능하다.

- 이해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누구나 오래도록 일하고 싶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재직자의 워라벨을 챙기면서 자기계발을 실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일·생활 균형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례 1부.
 2.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1부.

붙임 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사례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사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대표는 서울시로부터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 3천만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받게 되으며, 개선금으로 휴게실과 카페테리아를 조성하여 직원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업그레이드 하고, 일·생활균형 컨설팅을 통해 육아 지원시설을 갖추고 재택근무 등을 도입하여 선진적인 기업문화를 갖추게 되었음



복지공간 1 (휴게실)



복지공간 2 (카페테리아)



일생활 균형제도 1 (육아지원시설)



일생활 균형제도 2 (재택근무)

□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사례

[기업 대표] 청년인턴제도를 통해 귀중한 인재를 얻게 되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대체 근로계약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육아휴직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B씨는 출산을 앞두고 출산·육아기 휴직 문제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서울형 강소기업에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사업 덕분에 고민이 해결되었으며, 육아휴직 기간 뿐만 아니라 휴직 전·후 3개월간 함께 근무할 수 있어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도 덜게 되었음

[청년인턴] 계약기간이 1년이상 되어 경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정규직·계약직 구별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좋음

붙임 2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비고
<p>근무환경개선금</p>	<p>■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 최대 4,500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청년 채용 시 1명당 최대 15백만원(3명 한도) · 근무환경개선금 기본 1천만원 지원 · 여성재직자 40%미만 기업 여성채용 시 1인당 300만원 추가 · 서울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청년 채용 시 1인당 200만원 추가 	<p>서울시</p>
<p>육아휴직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p>	<p>■ 청년인턴 지원 : 최대 23개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육아휴직 전 3개월~복직 후 3개월까지 - 기업당 동시지원 6명 이내 (2명 전액지원, 그 외 인원 기업 자부담 50%) ※ 청년인턴 임금 :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p>서울시</p>
<p>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p>	<p>■ 일·생활균형 수준진단에 따른 교육 및 컨설팅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전문가 방문 컨설팅, 업종별 워크숍 	<p>서울시 (여성가족재단)</p>
<p>「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 운영</p>	<p>■ 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에 상시 채용 지원(무료)</p>	<p>서울시</p>
<p>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 적용(신인도, 기타)</p>	<p>· 서울형 강소기업 : 0.3점</p>	<p>서울시 (재무과)</p>
<p>서울시 마을 노무사 노무컨설팅 지원</p>	<p>· 마을 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노무 컨설팅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계약 관련 서류 작성 지원, 노무 관리 방법 안내, 노무 상담 등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p>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p>
<p>방송광고비 지원</p>	<p>· 지상파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할인</p> <p>※ 지상파 TV: KBS, MBC, EBS</p>	<p>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02-731-7321)</p>
<p>금융우대 혜택</p>	<p>·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 신한 일하기 좋은 기업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금리 0.5% p 우대 	<p>신한은행 기업고객부 (02-2151-5516)</p>